

스마트테크브리지 10년성과 ‘뚜렷’ 등록 이전대상기술 150만건 ‘훌쩍’

기보, 특허 등 공급기술 대거 축적
기술이전 계약 1만여건, 중개역할 톡톡
AI탐색·전자계약·금융 지원 강화
중기부, 스마트테크브리지 적극 활용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리지’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대상기술은 150만건이 훌쩍 넘어섰고 1만 건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돼 기술 중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테크 브리지(Smart Tech-Bridge)’는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수요 기술과 연구원 등이 보유한 기술을 연계해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거래 및 인수합병(M&A) 민간 플랫폼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스마트테크브리지에는 1월 현재 특허 및 실용신안 20만 건, R&D 과제 32만건, 논문 98만건 등 총 150만 여건의 ‘공급기술’(이전대상 기술)이 등록해 있다.

이는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개발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로, 중소벤처기업은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화를 시도할 수 있다.

운영 첫 해인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실제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1만96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관련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탐색해 이를 이전받고 사업화 등을 모색하는 길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기보 관계자는 “스마트테크브리지에는 범부처 R&D 정보가 망라돼 있다”면서 “AI 엔진을 탑재해 수요기업이 기술을 수월하게 탐색할 수 있고 전자계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스마트테크브리지 누리집 초기화면.

전국 65개 영업점을 연계한 보증 및 투자 등 금융지원, M&A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토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이달 진행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플랫폼을 활용해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추진 ▲기업승계형 M&A 시범사업 운영 ▲M&A 보증 신규공급 점진적 확대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을 위한 M&A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기보는 또 김종호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부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6년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자리에서도 ▲기업구조혁신업무 발전 방안 ▲AX 전략 및 AI 기반 기술혁신정보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올해 AI 반도체 등 신성장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초핵

심경제 실현 선도 ▲K-TOP 활성화 및 기술집해 손해액 산정평가 확대 ▲글로벌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및 벤처보증 확대 ▲M&A·기술거래·기술보호 활성화 ▲공정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중기부도 기술거래 성과가 좋은 스마트테크브리지를 적극 활용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기술 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새로 지원한다.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로 추진한다.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렸다.

중기부 황영호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테크브리지를 중심으로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이 실제 사업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HJ중공업, 지난해 영업이익 670억 ‘8배 급증’

조선 매출 회복·선별수주 효과
영업익 5년 만에 500억대 복귀

HJ중공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8배 이상 끌어올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선부문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구조가 대폭 개선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26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1조9997억원, 영업이익 6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었고, 영업이익은 824.8%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영업이익(72억원)의 8배를 넘어선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514억원으로 884.6% 증가했다.

HJ중공업이 500억원대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낸 것은 지난 2020년 516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상선수주와 기존 특수선부문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양대 사업 부문 중 조선부문의 매출 증가와 수익구조 개선이 두드러졌다. 지난 2022년 전체 매출의 18% 수준까지 낮아졌던 조선부문 매출은 업황 회복과

맞물려 급격히 회복되며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건설부문도 지난해 2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리며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선별 수주 전략이 주효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감축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면서 메탄을 추진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컨테이너선, LNG 병커링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선박 건조에 집중한 점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방산 분야에서는 해군이 발주한 신형 고속정(PKX-B) 32척과 공기부양식 고속상륙정(LSF-II) 8척을 전량 수주·건조하며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말 3800억원 규모 고속정 4척과 해경의 1900톤급 다목적 화학방재함을 수주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건조 물량을 확보한 점도 주목된다.

HJ중공업은 올 초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하며 향후 5년간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참여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강석진 “현장에 답… 기업 직접 찾아가겠다”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광주서 애로 청취
광주전남융합회와 회원들과 소통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현장 소통 프로그램 ‘찾아가는 중진공’을 통해 새해에도 중소기업 애로 청취에 적극 나선다. 중진공은 강 이사장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에 있는 디에이치글로벌에서 (사)중소기업융합광주전남연합회 회원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중진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강 이사장 외에도 임기택 케이엔텍 대표 등 광주전남융합회 15개 회원 기업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강 이사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며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수립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이날 정책자금, 수출·판로 지원, 혁신성장 및 기업 구조개선 지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진공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기업별 관심 분야에 대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인력, 투자, 사업 전환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여파를 감안한 정책 자금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 비수도권 지원 비중 확대 등 정책 제언과 경영 애로사항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승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대상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사용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접수를 설 명절 전인 2월9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전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총 579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쓸 수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에 더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낼 수 있다. 다만,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제외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시스

이전에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0원 초과 1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로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1인이 다수 사업체(개인·법인 무관)의 대표일 경우 1개의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신청은 내달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바우처를 지급받을 9개 카드사 중 선택하면 이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부제(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날인 2월10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다만 바우처를 사용할 때 한도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세아홀딩스, 세아특수강 완전 자회사 편입

지분 100% 확보·이중상장 해소
공시·감사 부담덜고 구조개선 가속

세아홀딩스가 세아특수강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분 100% 확보로 이중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그룹 내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특수강사업의 구조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세아특수강 주주명부에 등재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이전받아 지분 100%, 발행주식 830만9189주 전량을 확보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세아특수강은 다음

달 12일 상장폐지되며, 세아홀딩스는 세아특수강 주주에게 교부할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편입은 지난해 10월 양사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번 완전 자회사 전환은 세아홀딩스가 그간 자회사 중독상장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분산되고 유통주식수가 적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온전히 평가받는 데 제약이 있었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세아특수강의 사업 체질 개선을 보다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정비 성격도 갖는다.

/유혜은 기자